

11장 : 신고전주의 예술에서 후기 인상주의 예술까지

◆1교시 : 18세기 이후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리얼리즘

▲18세기 신고전주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매너리즘, 바로크, 바로크의 연장으로서 로코코를 예술사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들뢰즈/가타리의 유목 예술론 즉 유목 미학적인 견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신고전주의 예술 양식으로 들어가는데, 신고전주의 예술이 바로, 그리스 고전기 양식인 서양 예술 전통을 이어받은 르네상스 전성기 양식, 그리고 다시 2세기가 지나 18세기에 그 전형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고전주의 양식이라고 불리죠.

18세기로 들어서면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등장한 예술 사조를 신고전주의 양식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18세기에 대해서 잠시 개괄하면요, 18세기에 왜 신고전주의 양식이 등장했는지. 사회적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예술 양식이 등장할 때 그래 왔듯이 신고전주의 역시.

18세기를 역사적으로 계몽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계몽(啓蒙)이라는 게 열 개(啓)에 어리석을 몽(蒙)이라고 해서 어리석음을 깨우친다는 뜻을 갖고 있죠. 영어로도 같은 의미로 enlightenment. 인간의 미신과 무지로부터 이성의 힘으로 그 인간을 구제하고 인류의 역사는 발전해왔다는 발전사관을 바탕으로 하는 게 계몽주의죠.

계몽주의 정신의 밑바탕에는 이성과 합리주의 정신, 곧 과학의 힘이 있습니다. 근대를 17,18세기를 근대성이 활짝 핀 시기로 보는데, 17세기가 바로 갈릴레오와 데카르트의 시기였죠.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정신과 그 합리주의 정신의 분석적 사유를 바탕으로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그게 18세기에 뉴턴으로 이어지죠. 이후 세계를 이끌어가고 지배해가는 힘이 뉴턴 역학이라고 할 수 있죠. 18세기는 뉴턴의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계몽주의를 진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던 힘은 이성과 합리주의 정신이고 그 정신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자연과학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성의 시기와 연관 있죠. 신고전주의 예술이. 이성의 시기와 정신적으로 연관된 게 프랑스 대혁명이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기존의 권위체계, 교회나 왕권이나 귀족들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혁명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민중들, 물론 민중들은 없고 다시 권력을 차지한 게 부르주아죠, 이 시기 대혁명을 겪고 승리한 주체들에 의한 예술이 바로 신고전주의 예술인 것입니다.

신고전주의 예술이 이 시기에 탄생하는데, 혁명의 주체들은 자신들이 그리스의 이상이었던 민주주의 정신을 되살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존의 권위체계를 타파하고 자유와 평등을 이루었죠. 대혁명 슬로건이 자유, 평등, 박애잖아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떠올리는 거죠. 그리스의 자유민들을 자신들에 빗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히 예술도 그리스 예술을 다시 부활시키는 움직임이 일어난 거죠. 신고전주의 양식에서는 그리스 고전기 예술, 르네상스 시대에 다시 부활했고, 다시 신고전주의에 와서 그리스 양식이 부활하는데요. 왕립 아카데미에서는 그리스 고전기의 조각상을 보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대로 재현하는 걸 가르쳤죠.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많이 성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스 로마시대 조각품을 놓고 미술하는 학생들. 데생, 소묘. 그게 바로 이 시대에 형성된 거예요. 이 시대 예술가들이 그리스 고전기 작품을 놓고 연구하고 그리고 만드는 게 바로 신고전주의 예술인 거죠.

그리스 고전기 예술이 르네상스 전성기 예술이나 신고전주의 예술을 함께 놓고 보면요,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해요. 그 정도로 그 규범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형식, 규범, 질서들의 규범이 있었죠. 미의 기준을 수학적인 비례에 두고, 조화, 균형, 균제미, 절제미 등 그들이 부여한 형식에 맞게 예술이 행해졌죠.

그리스 고전기, 르네상스 전성기, 그리고 신고전주의의 계보를 형성하는 게 바로 예술의 전통이에요. 서양예술에 있어서의 계보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들은 많이 폼하되고 조롱당하고. 그게 계속 내려와서 인상주의도 조롱과 폼하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죠. 바로크, 로코코, 매너리즘, 고딕도 모두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예술의 유형에 붙여져 폼하됐죠.

▲낭만주의

신고전주의에 반대하는 반전통계열의 예술이 바로 19세기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19세기가 되면, 신고전주의에 반대하는 큰 세 개의 사조가 등장합니다.

먼저, 낭만주의죠. 우리가 낭만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낭만주의의 어원은 중세 기사도 문학이 이전의 딱딱하고 성서적인 것에서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이고 감정적이고 사랑에 관한 얘기들이 다뤄져요. 중세 성에 공주가 갇혀 있고, 그 성에 용이 지키는 얘기들. 그런데 용감한 기사가 나타나서 이겨 공주를 구해내는 스토리가 있죠. 어렸을 적 많이 읽던 동화가 이때 시작돼요.

이 시대에 보통 학문, 예술은 라틴어를 이용해서 구성됐는데, 이 기사도 문학이 ‘로망스어’라는 이탈리아 지방어로 쓰였어요. 여기서 비롯된 게 바로 로맨티시즘이에요.

낭만주의의 특징이라는 것은 신고전주의의 전통 규범 나아가서 계몽주의의 정신, 발전사관, 이성에 대한 반동이거든요. 이게 왜 로맨티시즘이냐. 보시면, 반전통적인 특징이죠. 신고전주의, 르네상스, 그리스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이 자연에 대한 재현이죠. 보이는 세계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 크게 말하면 리얼리즘의 전통이에요. 자연모방의 전통이죠.

그런데 낭만주의는 다 비현실적이죠. 환상적이고, 이성에 반대해서 감성을 중시하고. 사랑도 모두 감성에 속하는 거거든요. 예술에 있어서 이런 걸 추구한다는 건 이성 중심의 합리적이

고, 합리적이라는 게 어떤 법칙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것에 반대하는 개념이거든요.

낭만주의가 전통에 대한 도전이다, 반전통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보통 낭만적이라는 게 굉장히 감성적이고 사랑 얘기를 떠올리는데, 예술에 있어서 낭만주의는 전통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지만, 결국은 이런 성격이 반전통이에요. 이성에 반대하고 자연모방에 대한 반대고,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것. 이런 게 낭만주의에 다 들어 있어요.

‘고야’ 같은 화가를 보면, 거인을 그린다든가 해서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세계를 많이 그리고 있죠. 블레이크도 그렇고. 낭만주의와 신고전주의가 얼마나 확연히 다른 걸 추구하는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낭만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자연이라는 건 인위적인 기교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전통이 가진 형식, 규범, 질서는 자연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자연은 끊임없이 변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자연에 위배되는 인위적인 질서들에 대한 반동이죠. 낭만주의가 추구하는 게 바로 자유와 반동정신이에요.

낭만주의가 20세기로 넘어가면 모더니즘의 큰 뿌리와 모태가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할 모더니즘 예술 운동의 뿌리가 바로 낭만주의인 거예요. 20세기 이후로는 반전통의 행진이죠. 수천 년간 전통을 구축하고 규범을 고수하고 되살려내고 지키고자 하는 것이 거꾸로 20세기가 오면 그걸 다 깨는 작업을 해요. 덮개를 걷어내고 긁어내고 해체하는 작업이 20세기 이후 예술의 큰 특징이죠.

▲리얼리즘

낭만주의 계열과 또 하나의 19세기 반전통 계열로 사실주의. 아까 제가 말한 넓은 의미에서의 리얼리즘과는 다른 하나의 사조로서 리얼리즘이에요. 그런데 왜 신고전주의에 반대하느냐. 기법으로 보면 리얼리즘이나 신고전주의나 광의의 리얼리즘에 속하죠. 외부 현실을 보이는 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데서.

그런데 성격이 좀 달라요. 리얼리즘은 확연히 반전통적이라는 게 시대성과 신고전주의 양식을 다 반대하죠. 그런데 낭만주의와도 좀 달라요. 낭만주의가 폭넓게 전통에 대한 반항적인 정신이 있다면, 리얼리즘은 사회성과 정치성이 강해요. 19세기가 2월 혁명, 7월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당선언이 나온 시기거든요. 이제 밝혀지죠, 뭔가. 프랑스 혁명의 주체가 된 피흘려 쟁취한 사람은 굶주리고 헐벗고 소외된 민중이죠. 그런데 그 단 열매를 차지한 것은 부르주아 계열이죠. 그래서 농민, 노동자들은 여전히 더 가난하고 꺾박받고 더 헐벗고, 더 억압당하지만 부르주아는 새로운 권력체제로 등장하죠. 거기에 대한 강한 반운동이 이 시대에 일어난 거죠. 이 사실과 많이 관련이 있죠.

리얼리즘도 신고전주의를 반대하죠. 이건 부르주아 예술이라는 거예요. 맞죠. 부르주아들의 양식인 거죠. 굉장히 귀족적이고 우아해요. 그것에 대한 조롱이고 부르주아에 대해 충격을

주고자 하는, 반부르주아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부르주아들이 처음에는 자유, 평등을 외쳤지만 결국은 귀족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거죠. 부르주아의 이중성에 대한 반기. 그래서 리얼리즘은 부르주아 계급이나 귀족이나 그 이전의 왕족들을 그리는 게 아니라 노동자, 농민 계층들을 소재로 해요.

신고전주의와 사실주의의 양식 면에서의 큰 차이는 둘 다 사진 같아요. 외부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애쓰는데, 차이가 있다면 신고전주의는 뽀샵된 사진이고 리얼리즘은 뽀샵안된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고전주의는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표현도 절제하면서 나름대로 형식과 규범에 맞는 미를 하나 상정하고 거기에 맞추죠. 신고전주의 예술도 굉장히 미화돼 있어요. 그런데 리얼리즘 그림은 아주 추하면 추한 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리얼리즘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나중에 우리가 사진으로 비교해보겠지만, 어디가 다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리얼리즘 예술이 영향을 많이 미치죠. 사회주의 리얼리즘 같은 경우는 정신면에 있어서도 조금 다르고, 예술의 테크닉 면에 있어서는 비슷해요. 리얼리즘이 사회성과 정치성이 강하면서도 순수하게 비판하는 면이 있다면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사회주의 쪽 이데올로기에 종속되다시피 해요. 이데올로기의 선전에 많이 이용되죠.

북한 방송을 보면, 그림이 나오는데 ‘위대한 수령 동지’라고 적힌 게 나오죠. 정치적인 선전용으로 많이 그려지죠. 정신면에 있어서는 둘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기법 면에서는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데 사회주의 리얼리즘도 약간 미화가 되죠. 김일성 얼굴이라고 보면, 아무래도 실물보다 잘 그리지 않아요.

보통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리얼리즘의 연장으로 보기는 뭐해요. 하지만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죠. 특히 우리나라 80년대 민중 예술은 리얼리즘과 더 많이 닮아있죠. 공산권 사회주의 리얼리즘보다는 제 3세계 리얼리즘이 리얼리즘과 많이 닮아 있어요.

◆2교시 : 19세기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인상주의

낭만주의나 리얼리즘 말고 19세기 또 하나의 반전통계열로 등장한 게 인상주의예요. 인상주의는 낭만주의나 사실주의와 또 달라요. 인상주의가 중요시여기는 것은 신고전주의 계보가 재현의 예술이잖아요. 과연 서양 예술이 추구한 보이는 대로 그리고 재현 전통, 자연 모방의 전통이 본대로 그런 건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본대로 그린다는 것은, 회화에서 보면 공통적 특징이 입체감이죠. 르네상스 시대에 그리 추구한 3차원성. 2차원의 평면에 어떻게 하면 3차원의 자연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까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온갖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성취하죠. 르네상스 전성기에. 신고전주의는 그걸 다시 살려내고.

그런데 전통주의 예술은 자연광이 아닌 인공적인 조명 아래서 실내와 인공적인 조명에 의해서 입체감이 드러나는 거지, 실외의 자연광 속에서 사물을 보면 이렇게 전통예술이 표현한 것처럼 입체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햇빛 찬란한 정오나 오후에 친구의 얼굴이나 사물을 보면, 하얗게 평면적으로 보여요. 이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전통 예술은 보았다는 게 지식에 의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입체감으로 생겼다는 것, 아는 것을 그린 거죠.

그런데 진짜 본대로 그린다는 것은, 자연광 즉 광학작용에 의해 봐야 한다는 거죠. 광학작용에 의존해서 작품을 만들죠. 지식이 첨가된 게 아니라, 광학작용에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본다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아틀리에를 실내가 아니라 외부에 두죠. 모네는 배에 아틀리에를 만들어서 그렸죠. 그래서 이들을 자연광에 의지한다고 해서 외광파고 별명을 얻기도 했죠.

이들 그림의 특징은, 빛은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실내조명은 변화가 없죠. 외광은 해가 움직이고 구름이 움직이고 기상에 따라 계속 변하죠. 그걸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의 속도도 빨라지죠. 빨라지다 보니까 표현이 굉장히 거칠어요. 거친 붓 터치. 빨리 그려야 하니까 순간의 인상을 포착한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죠. 거칠다는 것은 꺼끌하다는 게 아니라 정교하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러프하다는 걸 뜻해요.

나중에 신고전주의와 한번 비교해보세요. 신고전주의는 굉장히 공들여서 입체감과 원근감을 살리죠. 르네상스나 신고전주의는 굉장히 정교한 그림이에요. 마치 사진을 찍듯이. 리얼리즘도 그렇죠.

그런데 인상주의는 그리다 만 그림 같아요. 인상이라는 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빨리 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친 붓 터치가 큰 특징이고, 순색의 사용도. 색을 섞을 시간도 없는 거죠. 빨강이면 빨강 노랑이면 노랑 빨리 짜서 섞어도 대충, 오래 섞을 시간도 없겠죠. 채도가 굉장히 높아요. 채도가 높다는 건 투명하고 맑은 느낌이 나요. 색을 섞을수록 채도가 낮아지잖아요.

외광에서 강한 정오의 햇살 아래서 얼굴을 보세요. 평평해 보여요. 입체감이 안 살아요. 그래서 평면적이고, 또 거칠다 보니까 형태 자체가 불명료해지죠. 신고전주의나 고전 형식에 다 위배되는 특징이죠. 단순, 명료, 절제, 균제 등의 정반대죠. 섬세하지도 않고 굉장히 거칠고 형태는 불명료하고, 한마디로 모호하고, 색깔을 몇 가지 사용하지 않아 명도와 채도가 높게 형성되고, 입체감은 제대로 살지 않은 특징을 가지니 당연히 신고전주의의 방식에 폭

젖은 기존의 평론가들이 볼 때는, 엉터리 같은 거죠. 살롱에서 낙선하면 자기들끼리 낙선전 열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은 게 인상주의예요.

가장 들뢰즈/가타리가 주장하는 유목 미학들 요소가 인상주의에서 선명히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한 유목성, 리즘, 매끈한 공간과 굉장히 일치하는 사조가 인상주의가 아닌가 해요. 그림을 직접 보셔도 공감하실 거예요.

낭만주의의 특징은 인상주의까지 인상에 치중해서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소재나 틀에 박힌 소재가 아닌 독특한 소재를 다룬다든가, 형식과 규범, 단순미, 절제미, 균형미, 비례에 구애를 받지 않는 거죠. 낭만주의도 형상보다는 질료적인 그림이에요. 형태보다는 색채 위주로 가는 거죠. 색을 통해서 풍부한 감성을 전달하는 특징을 가져요. 이따 사진을 통해 특징을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인상주의 : 세잔, 고흐, 고갱

인상주의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뒤에 이어지는 게 후기 인상파거든요. 후기 인상파는 여러 명이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인물로 세 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세잔, 고흐, 고갱. 이 세 사람은 후기 인상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특징도 세 사람이 아주 두드러져요.

후기 인상파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상파에서 간과한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죠. 이들을 왜 후기 인상주의로 분류하느냐면, 인상파의 많은 부분을 수용해요. 평면성, 거친 붓 터치, 순색의 사용 등 인상주의 기법을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 극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극복하는 부분이 셋 다 달라요.

세잔 같은 경우는 인상주의자들이 너무 순간적인 인상에만 사로잡혀서 전통이 가진 형태감, 질서, 균형도 긍정해야 한다는 거죠. 인상주의에서 잃은 형태감을 같이 살리고자 해요. 인상주의의 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전통적인 형태감에 주목하죠. 어떻게 하면 같이 살릴까가 세잔의 관건이었고 평생을 통해 이루어 내게 되죠.

형태에 대한 그들의 주목은 20세기에 가서 큐비즘이 영향을 받아요. 입체파. 피카소 브라크 등 많죠. 이들이 세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예술가들이죠.

고흐의 경우도 역시 인상주의의 방법을 받아들여요. 거친 붓놀림이나 순색의 사용, 평면성을 받아들이되 인상주의가 간과한 게 낭만주의가 갖던 내면의 열정, 감정을 상실했다는 거죠. 인상주의의 그림을 보면 낭만주의처럼 감정을 신지 않아요. 그냥 피상적인 것들, 시시각각 변하는 사물의 인상을 잡기에 급급한 거죠. 고흐가 아쉬워한 건 그런 거죠. 그래서 낭만주의처럼 내면의 열정, 감정을 작품에 함께 담고자 해요. 그래서 고흐의 작품을 보면, 내면을 울리는 심금을 울리는 게 있어요.

고갱의 경우는, 역시 인상주의의 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세잔이나 고흐보다 폭넓은 세계를 작품에 담고자 했죠. 계몽주의 이래로 이성의 힘, 발전사관, 과학이 나온 혜택 이면에 인간이 중요하게 잃어버린 원시성, 순수성, 인간의 원초성을 되살리고자 하죠. 어린 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고갱은 남양분도로 떠나죠. 원시성을 찾기 위해서. 타히피 섬에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비참하게 죽요. 고갱은 당시 많은 예술가나 지식인 정신세계의 표상이기도 했어요. 계몽주의가 과학 만능주의로 치닫게 되면서,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폐단을 깨달으면서 인간들이 19세기에 공통으로 느끼는 예술의 표상이죠.

고갱은 20세기 화가들에게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요. 원시주의의 경향을 많은 후대 화가들에게 심어주게 되는데, 루소, 샤갈, 마티스 굉장히 많죠. 원시적인 요소를 20세기 화가들이 여기서 받는 거죠.

인상주의 이후 후기 인상주의 계열, 여기서 20세기로 이어지는 영향권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서양 전통 예술의 계열과 함께 19세기 반전통계열을 살펴보면서 그 영향을 받은 후기 인상파와 또 이들의 영향을 받는 20세기 초반을 봤죠. 고흐는 20세기 표현주의에 영향을 주죠. 입체파, 표현주의, 원시주의까지 전반적으로 봤죠. 그런데 미술사에 있어 전통과 반전통 계열과 들뢰즈/가타리의 예술론과는 좀 달라져요. 우리가 사진으로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유목미학에 대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 신고전주의의 낭만주의 예술품의 예

▲신고전주의의 예술품

이게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축이에요. 버지니아주의 저택인데요. 어때요? 그리스 신전의 열주식 기둥과 삼각형의 박공 지붕 그리고 로마 시대 전통이라 할 수 있는 돔형 지붕, 아치형 창문. 고전기 양식이 르네상스에 부활되고 다시 신고전주의에서 부활되는 거죠.

이것도 그냥 보면 르네상스 건물 같은데, 아니고 신고전주의 시대 18세기 건축물이에요. 그리스 고전기 이오니아 양식이란 걸 알 수 있죠. 이게 어느 시대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세 시대의 형태가 닮아 있어요.

이건 오리지널 그리스 신전이죠. 좀 전에 보았던 이오니아 양식 고사리 문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이것의 재현인 거죠. 이게 헤라 신전일 거예요. 이오니아식 기둥, 열주식 기둥이 있고 박공이 있고, 전체적인 기본 형태를 르네상스와 신고전주의에서 되살리고 있는 거예요.

회화로 들어가면, 18세기 대표적인 화가가 ‘다비드’죠.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고 해서, 독배를 마시는 장면이에요. 역사적인 장면을 다루고 있고, 양식에 있어서도 고전기 양식이 부활되지만 내용에 있어서도 그리스 로마 시대를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입체감, 원근법은 기본이고 3차원의 보이는 세계에 대한 재현, 모방에 심혈을 기울여서 구현해 내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죠. 이들의 이상이었던 형태의 명료함, 딱 떨어지는 형태감, 단순 명료하고 그들의 조화, 질서. 그들의 규범을 잘 살려 그린 그림이죠.

이것도 다비드의 <혁명가 마라의 죽음>이죠. 여기에서도 그들이 그리스 조각상을 연구해서 인체의 해부학적 특징을 살리고,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고 있죠. 르네상스 전성기에 라파엘로나 미켈란젤로, 다빈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걸 여기서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이죠. 정말 사진 같죠? 사진처럼 정교하고 섬세하게 그려냈는데 전체적으로 미화된 거죠. 원래 나폴레옹은 이렇게 잘 생기지는 않았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미화된 느낌이 나는. 뽀샵된 사진 같은. 이따 나오는 사실주의 회화와 비교해 보세요.

이건 다비드의 저자, '앵그르'. 같은 신고전주의의 대표적 화가죠. 인체가 마치 그리스 조각상 같죠. 그들이 아카데미에서 연구한 것도 그리스 조각이거든요. 그리스 조각을 2차원 평면에 3차원 현실처럼 똑같이 재현했죠.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부분들이죠.

이것도 역시 앵그르의 인물화 <오달리스크>인데요. 르네상스 전성기의 그림과 굉장히 흡사해요. 이렇게 유명한 앵그르나 다비드의 그림은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 조금 덜 알려진 화가를 보면 그게 르네상스 그림인지 신고전주의 그림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예요.

이것도 앵그르의 부인상이죠. 뽀샵된 사진이 어떤 것인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신고전주의 양식의 회화예요. 리얼리즘, 사실주의 화가인 쿠르베 화가가 왜 그렇게 도전적으로 나왔는지, 신고전주의가 귀족주의 풍이라고 비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보시면 다루고 있는 사람이 부르주아, 권력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동정신을 가진 게 리얼리즘 화가들이죠. 좀 이따 비교해보도록 하고요.

이것도 신고전주의의 우동이라는 조각가의 작품인데, 볼테르를 모델로 하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품, 아니면 르네상스 전성기의 조각품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전통이 갖는 규범과 질서를 잘 재현한 사실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 그리스 로마 신상 같죠. 하지만 아니고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이 7등신이나 8등신이 아닐뿐더러, 반신이었죠. 조각에 있어서도 회화에 못지않게 미화한 걸 관찰할 수 있어요. 조각 자체도 거의 그리스 고전기, 르네상스 전성기 조각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닮아 있어요.

이게 오리지널, 그리스. 엄밀히 말하면 로마시대의 복제품이지만. 어쨌든 고전기 양식의 전형으로 보여드렸던 아폴론상이죠. 아폴론상이나 신상이나 나폴레옹상이나 다 비슷하죠. 그만큼 신격화돼 있었던 거죠, 나폴레옹 자체가.

이것도 같은 시기의 비너스상이죠. 이들의 이상화된 아름다움의 부분을 그대로 살려내는 게 신고전주의 양식의 특징이에요. 이건 비너스와 비슷하지만, 신고전주의 조각품이죠. 상당히 닮아있죠.

▲낭만주의 예술품

그리고 낭만주의로 오면, 고야의 거인이라는 작품인데요. 내용 면에서도 굉장히 전통의 사실주의 기법과는 거리가 멀죠. 테크닉 면에 있어서도, 단순 명료하고 조화와 균형, 균제미를 중시했던 고전기 풍의 그림과는 다르죠. 거칠고 모호하고 정제되지 않은 선. 색채 위주, 질료 위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들뢰즈/가타리 유목 예술론에서 나온 말이죠.

전통주의와 낭만주의 계열의 차이가 이런 데서 확연히 차이 나죠.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이성보다는 감성이 중시되고, 고전주의가 가진 많은 규범을 깨는 작품이에요.

이것 역시 고야가 거인을 다룬 작품. 조그만 마을, 사람들, 소들을 보면 거인이 얼마나 큰가 비교가 되죠. 이런 낭만주의가 추구하는 작품이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환상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전통에 반하는 낭만주의가 갖는 정신이 든 작품으로써 택했어요.

이건 르네상스 전성기의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죠. 시스티나성당 천장 벽화, 보수되기 이전의 원본작품인 것 같은데 천지창조에서 아담이 창조하는 부분이죠. 이걸 왜 보여 드리느냐면, 전통 고전적 스타일의 회화와 다음에 오는 낭만적 회화와의 차이를 눈 여겨 보시라고요.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낭만주의 화가가 그린 <아담의 창조>예요. 얼마나 다른가. 고전주의가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사실적 전통, 해부학적 정확성, 3차원적인 입체감을 다 무시하고, 격렬한 감성 낭만주의적인 특징이 다 들어있죠.

인상주의에서 잃어버렸다고 고흐가 개탄했던 내면의 열정이 블레이크의 그림에 강렬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레이크는 화이기도 했고 시인이기도 한 기인이었죠. 블레이크의 영향을 후대가 많이 받았죠. 전기 낭만주의의 화가고.

이건 아랍인의 전투에 관해 다룬 건데, 소재에 있어서도 기존의 신고전주의가 다루던 부르주아에 대한 예찬과 비슷한, 아까 조각이나 그림 봤죠? 그들의 우월감이 드러나는 그림이 아닌 전혀 다른 세계, 그때까지는 다루어진 적이 없는 아랍인의 세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정적이고 공간적인 그림이 아니에요.

조각이든 회화든 신고전주의 작품을 보면, 마치 사진 찍는 포즈를 잡듯이 정물화처럼 표현되죠. 순간을 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동적이에요. 역동적이고. 아주 다이내믹한 상황이 전개되는 한순간을 그리는 거죠. 전투하는 장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낭만주의 예술가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내용면에서나 기법에 있어서나 전통과는 완전 다른 스타일이죠.

이것도 ‘들라크루아’의 작품이에요. 들라크루아는 아랍인의 세계를 제대로 관찰하기 위해서 북아프리카로 가서 함께 거주하며 그들을 스케치하고 연구하고 그들의 삶과 여러 가지 생활 방식, 의상을 비롯한 갖가지 그들의 세계를 관찰하고는 화폭에 담았다고 해요.

그래서 전통 예술이 다루지 않은 아랍 세계를 모델로 해서, 역동적이고 격렬한 화풍을 취하고, 색채 위주의 명료하지 않은 형태들인 낭만주의의 특징이 공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건, 얼핏 보면 무슨 그림인지 모르시겠죠? 이건 낭만주의 화가 중에 풍경화를 많이 그린 터너의 작품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주의인 재현에 충실한 바다는 아니에요. 눈보라, 폭풍우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배를 그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색들만 소용돌이치는 것처럼 보이죠. 추상화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고 하면, 낭만주의의 특징이죠. 내면, 느낌을 담기 때문이죠. 위태롭고 격렬한 순간의 감정이 그대로 실린 거죠.

고전적인 그림과 비교해 보세요. ‘얀 반 고옌’이라는 르네상스 시기 북유럽의 화가인데, 물론 파도가 치고 구름이 있는 걸로 봐서 지금도 일기가 불순한 상황이에요. 잔잔한 바다는 아니고. 이 전통적인 그림과 낭만주의의 풍경화는 어떻게 다른가. 낭만주의가 추구했던 게 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4교시 : 19세기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작품의 예

▲사실주의 화가의 특징

그리고 이제 사실주의로 넘어가서, 도미에의 <3등 열차>죠. 리얼리즘 예술가의 큰 특징은 신고전주의의 부르주아적이고 귀족적인 내용으로부터 탈피하죠. 소외된 농민, 노동자 계층의 삶을 진솔하게 담고 있어요. 미화시키려야 시킬 수가 없는 부류죠. 서민과 노동자 계층들. 그들의 험벗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뒤를 보면, 부르주아 계급들이 배경처럼 보이죠. 그들과 대비하죠. 이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의관 정제한 신사와 대비시키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사실주의 그림이에요. 쿠르베의 <안녕하세요 쿠르베씨>라는 제목을 단 작품인데, 이게 쿠르베 자신이고요. 반대쪽이 부르주아예요. 부르주아의 공통적인 특징이 재킷과 양복 모자, 지팡이까지 의관을 정제해야 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들이 외출할 때 두루마리를 안 입고 민저고리로 못 다니는 것처럼 그 시대 큰 규율이었죠.

그런데 쿠르베는 셔츠차림으로, 우리식으로는 맨 저고리 차림으로 나간 거죠. 그러면서 부르주아의 드러내는 것 걸치레에 대한 가식, 이중성에 대한 도전이죠. 그런 걸 표현하기 위

해 쿠르베가 셔츠 바람으로 묘사돼 있어요. 비교를 하기 위한 의도도 있겠죠. 외관 정제된 부르주아 두 사람을 대치시키고 있죠. 여기서도 특별히 미화시킨다든가 하지 않고, 신고전주의풍과는 다르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죠.

사실주의는 진실주의가 더 맞다는 평을 하기도 해요. 신고전주의가 그만큼 가식적이고 작위적이라는 거죠. 그에 반해 있는 그대로를 진솔하게 드러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쿠르베의 그림이에요. 노동자 아버지와 아들을 그린. 비참함이 그대로 드러나죠. 아들의 셔츠가 찢어져서 맨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이들의 비참하고 고단한 삶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들이 그리고자 하는 소재가 신고전주의가 소재로 했던 부르주아 계층과는 전혀 다른 노동자 계층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리얼리즘 예술의 또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인상주의 화가의 특징

19세기 낭만주의, 사실주의와 더불어 또 하나의 신고전주의에 대한 반대 화풍을 가지고 등장한 게 인상주의죠. 인상주의 초창기 멤버라고 할 수 있는 마네. 마네부터 인상주의를 애기하기 시작하죠. 보시면 신고전주의풍이랑 달라요. 자연을 모방하고 있긴 한데.

벗은 여성의 몸을 보면, 입체적이지 않아요. 평면적이죠. 만약 마네가 여자를 누드로, 남자들은 옷을 다 입고 있죠, 누드로 그린 이유가 인체가 외광 속에서 어떻게 보이는가, 평면적으로 보인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관 정제된 신사들과 대비시키면서 햇빛에 드러난 여인의 신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입체감이 조각처럼 두드러지는가. 과연 본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죠.

모네는, 인상주의의 특징이 가장 잘 대변되는 전형적인 인상주의 화가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광 속에서 빛이 주는 인상엔 포착해서 화폭에 담기 위해 따로 아틀리에를 갖지 않고 배 위에서 그림을 주로 그렸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건 모네고요. 이것을 그린 사람은 마네예요. 마네가 그린 모네예요. 그림 풍이 모네 풍으로 그렸죠. 얼마나 빠르게 그렸는지, 여자 모델의 이목구비가 뭉개져 있을 정도죠.

그리고 입체감, 원근법보다는 빛이 주는 순간의 인상, 빨리 그리다 보니까 정교하지 않고 얼굴이 뭉개질 정도로 거친 붓 터치. 정교하게 오랫동안 심사숙고하면서 색을 만들지 않고 순색의 사용이 많죠. 전체적으로 채도나 명도가 높은 맑은 순색이 드러나죠. 인체가 강한 광선 아래서 평면적으로 표현된다는 것. 그래서 인상주의 화풍이 잘 드러내는 작품이에요.

이게 모네가 그린 그림이죠. 몇 개의 붓 터치로 작품이 완성돼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작품이 완성된 걸 알 수 있죠. 여기에서도 평면성, 순색의 사용, 거친 붓놀림, 명료하지 않은 윤곽선, 형태감이 상실돼 있죠. 이런 부분들이 신고전주의 풍을 이상으로 여겼던 많은 비평가

들에 의해서 굉장한 혹평을 받는 거죠.

이건 ‘르왕 성당’인데, 모네는 빛이 주는 시각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인상에 집중하다 보니 까 연작 시리즈를 많이 그려요. 같은 르왕 성당도 새벽에 본 것, 정오에 본 것, 정오에 본 걸로. 그때마다 빛에 작용에 의해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진짜 본대로 그리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본대로 그리고 재현의 전통에 입각해 그린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전주의 풍과는 전혀 다르죠. 같은 본대로 그리는 거지만.

인상주의자는 본대로 그리는 것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맞다고 보는 거죠. 복잡한 성당의 장식들, 정교하고 복잡하고 육중한 성당의 특징이 빛에 의해서 하나의 평면으로 처리되는 거죠. 외광 속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눈여겨 외부에 나가서 관찰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문제의 인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네의 작품이죠. 해 돋는 장면인데, 거의 물감 통을 화폭에 던져놓고 이걸 그림이라고 한다고 욕을 했죠. 이 해돋이 할 때의 인상과 느낌이 굉장히 살아나죠. 신고전주의의 전통 회화를 그리는 사람들과 그쪽에서 평을 하는 사람들이 억울해 하는 건, 작품을 하나 만들려면 몇 달을 아틀리에에서 고통과 고뇌 속에서 실습을 통해 많은 습작을 남기며 완성해냈죠. 전통의 그림들이.

인상주의 그림은 도대체 몇 초가 걸렸는지, 기준에 거기에 두어지는 거죠. 이렇게 불성실한 그림을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비판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서로 추구하는 게 다른 거죠.

이건 인상주의 화가 중 피사로가 그린 그림.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본 광경. 전혀 정교하지 않은. 그런데 먼 곳에 있는 걸 그린다 해도 고전주의는 굉장히 정교하게 표현해요. 그런데 피사로는 진짜 광학 작용에 의해서 보면, 높은 건물 위에서 햇살이 비치는 거리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인상주의가 굉장히 많은 혹평과 욕을 먹고 조롱당하고 외면당하는데 이들은 그래도 그나마 후기 인상파에 비하면 행운아들이예요. 죽기 전에 명성을 다 찾아요. 인정을 받게 돼요. 인상파 화가 대부분이.

이건 르누아르죠. 인물을 주로 다룬. 햇빛 속에서 남녀들이 유쾌하게 모임을 갖는 장면인데, 그림이 전체적으로 표현이 거칠죠. 인상주의의 방법의 공통점이 경쾌할 정도로 순색이 많이 들어가고 입체감에 구애받지 않죠. 외광 속에서 평면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햇빛 찬란한 데서 사람을 보면 이목구비가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사진작가들이 인물을 찍을 때는 주로 흐린 날이나 어느 정도 해가 넘어간 시각에 많이 찍어요. 외광에 의하면 실루엣이 잘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인상주의 화가들 그림의 형태가 명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상주의 조각가로 분류되는 로댕. 인상주의 조각의 특징은, 회화가 그런다면 그림 같죠? 그러다가 만 듯한 그림이라면 인상주의 조각은 만들다 만 조각 같아요. 그만큼 정교하지 않은 거죠. 이것도 로댕의 작품이에요. 고전주의 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완성도의 면에서. 그들이 가진 재현의 이미지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후기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

그 뒤에 이어지는 후기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보면요. 후기 인상과 화가 중의 세잔이죠. 세잔이 추구했던 바가 인상주의의 방법을 받아들이면서도 인상주의에서 많은 부분 간과한 전통의 질서, 규범, 형태감을 같이 살리고자 했죠. 그것 자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견고한 형태감을 같이 살리고자 했죠.

보시면 굉장히 견고하고 안정감 있는, 인상주의 작품에 비해서 정적인 부분이 도입되죠. 바위 표현한 거 보세요. 그러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평면성이 살아나기도 하고, 거친 붓놀림은 인상주의의 방법이 남아 있어요. 순색의 사용도 돋보이죠.

그러면서 고전주의 풍이 가진 입체감, 원근법도 같이 살아나고 있어요. 세잔이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했는지 작품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흑백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원근법, 입체감, 형태감이 정말 살아나는가는 흑백으로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죠. 그러면서도 인상주의의 요소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잔의 능력, 천재성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흐의 그림이죠. 신인상주의의 또 한 명의 대가. 고흐는 세잔과는 다른 면에서 인상주의를 극복하고 있죠. 인상주의적인 부분은 역시 많이 남아있죠. 거친 붓놀림이나 순색의 사용, 평면성, 불명료한 형태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흐가 함께 추구하고자 했던 인상주의가 간과한, 인간 내면의 정서와 열정, 감정의 부분을 같이 싣고자 했죠. 고흐의 감정이 그대로 실려 있죠.

고흐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불안한 내면의 심리가 자신의 작품이 그대로 담기는 거죠. 아까 낭만주의 작품들을 봤죠? 고야나 들라크루아나, 터너는 내면의 정서를 담고자 했죠. 고흐에 의해서 작품에 실리게 되는 거예요.

<별이 빛나는 밤>, 고흐가 죽기 바로 직전에 그린 그림이죠. 정신병적인 부분으로 많이 고통받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 그때의 불안하고 격렬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죠. 이렇게 내면의 정서를 담고자 했던 고흐의 취지가 담긴 작품이죠.

그리고 또 한 명, 고갱. 고갱이 잠시 고흐와 같이 산 적이 있었어요. 그때 고흐가 그림 그리던 장면을 그린 작품이에요. 나중에는 이들이 서로 안 맞아서 안 좋게 헤어지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고호가 귀를 자르고 그 이후 고갱은 남양 군도로 떠나게 되는 여러 사건.

고갱도 인상주의적인 화풍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순색의 사용, 원색을 많이 쓰죠. 평면성, 거칠고 정교하지 않은 표현들. 그러면서도 고갱이 함께 살리고자 했던 게 근대를 지나오면서 인간이 잃어버린 원초성, 원시성, 순수함. 마치 어린 아이와도 같은 때 묻지 않음. 과학, 진보와 같은 합리주의, 이성애 물들지 않은 순수한 원시상태를 동경했죠. 그 시대에 많은 학자나 예술가들이 공통적으로 동경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고갱의 이런 정신은 광범위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반근대성. 그래서 이후 20세기 화가들에게 세잔, 고호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게 고갱의 원시주의죠. 프리미티비즘이 많은 예술가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시대에 정신과 가장 잘 맞는 부분이기 때문이겠죠.

남양 군도 타히티 섬에 가서, 젊은 여자를 얻어 원시인처럼 살죠. 원주민들처럼 살면서 그들의 생활을 그린 거죠. 그만큼 밀도 있겠죠. 삶 자체를 경험했기에. 고호도 불행하게 삶을 마쳤지만, 고갱도 비참하게 병에 걸리고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외롭게 죽죠.

인상주의와 달리 후기 인상과 세 화가의 공통된 특징은, 살아 있을 때 빛을 못 받았다는 거죠. 죽어서 그 이후에 인정을 받게 되죠.